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75 | 2025 MARCH | 03 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 신명기 10:19 -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

- 미얀마의 상황
- 그들의 이야기

박해와 선교현장

- 미얀마

Heart To Heart

-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 50일 기도 책자
- 월드와치리스트 지역설명회
- 북한선교학교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5년 03월호 | 통권 275호 |

등록번호-증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업)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조남준, 임훈희,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한로이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섯별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

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목차

03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

- 미얀마의 상황 - 그들의 이야기

11 박해와 선교현장

- 미얀마

19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20 Heart To Heart

- 2025년 월도와치리스트 50일 기도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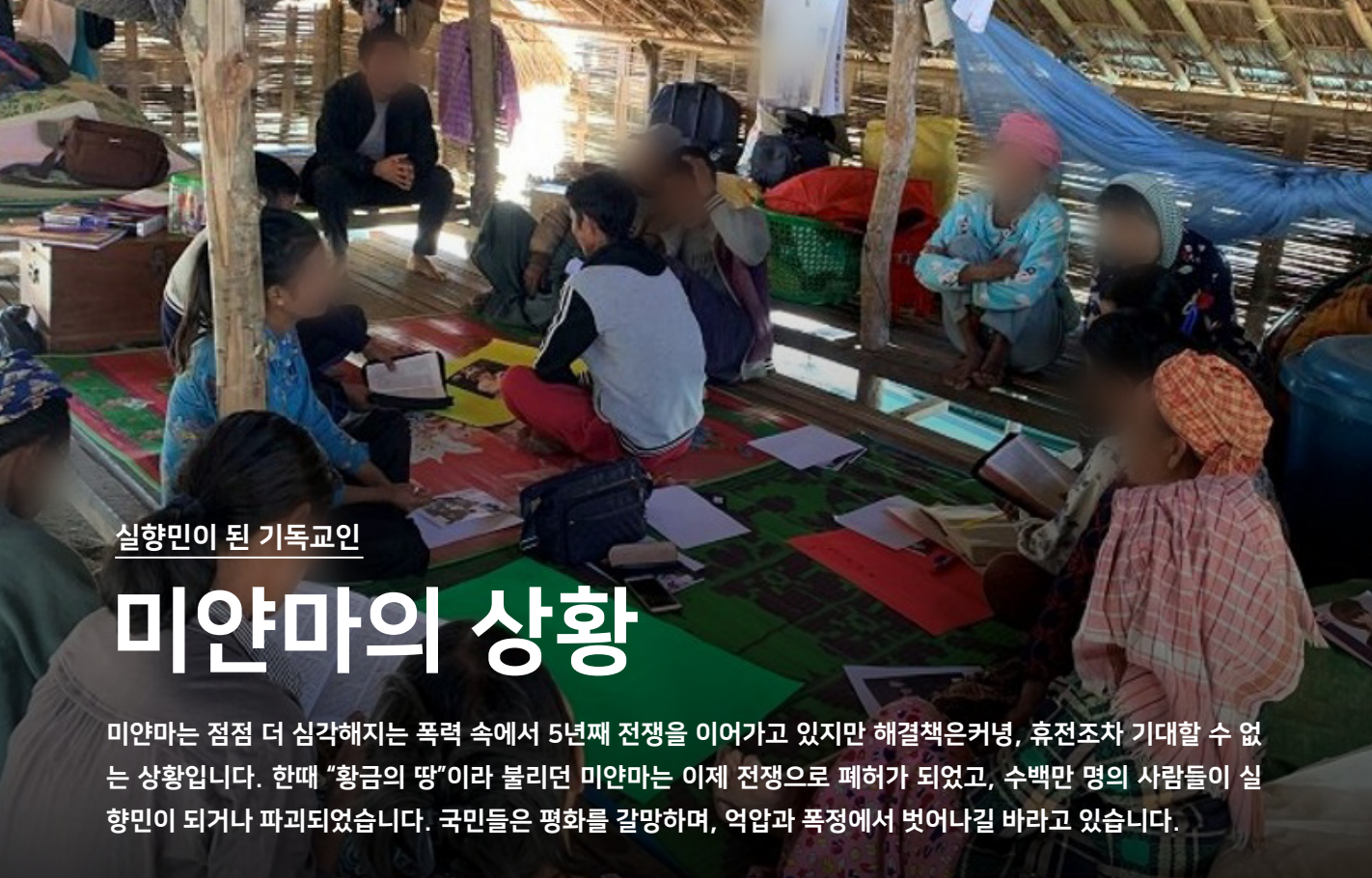
- 월도와치리스트 지역설명회

- 북한선교학교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

미얀마의 상황

미얀마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폭력 속에서 5년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결책은커녕, 휴전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때 “황금의 땅”이라 불리던 미얀마는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향민이 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평화를 갈망하며, 억압과 폭정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

2021년 2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미얀마 곳곳에서 전투가 지속되었습니다. 폭력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군부 정부는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반군 저항 세력들은 군부의 영토를 빼앗으며 대규모 저항 “작전 1027”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군은 아직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자유와 자원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군부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국에서 집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뉴스, 인터넷, SNS, 통신을 검열하여 정권에 유리한 정보만 유포하고 있으며 전쟁의 실태와 국민들의 고통이 외부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군부의 표적이 된 그리스도인들

군부는 기독교 마을과 교회를 공격하며, 기독교 구호 활동가와 목회자를 살해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 사찰은 대부분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친 주에서 400채의 가옥과 5개 교회가 있는 마을이 완전히 파괴된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 또 다른 사례로, 유명한 침례교 목회자인 할람 삼손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지만, 다음 날 다시 체포되었고, 결국 2024년 7월에야 최종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교회들도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친, 카친, 카야 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소수 집단이 거주하는 카렌 주와 북부 산 주에서도 군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실향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국내 실향민 캠프 (IDP)에 머물거나, 교회에서 피신하거나, 식량과 의료 지원을 받기가 극히 어려운 밀림으로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미얀마에서는 약 280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으며, 이는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게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문 목사*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친 주에 있는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희는 안전을 위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들마저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도시로 도망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운 마을이나 밀림으로 피신했습니다.”



카야 주 출신의 실향민 모에 모에*도 오픈도어 파트너에게 자신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찾아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 저희의 안부를 묻고 저희가 잘 있는지 돌보아 준 것이 오래 전입니다. 저희의 교회와 가족들이 총격과 폭탄 공격을 받았을 때, 저희는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몇 번이나 이주해야 했고, 계속 그렇게 도망치는 것은 힘듭니다. 저희는 매일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오픈도어 파트너들이 실향민들을 위해 마련한 박해 대비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목사님은 험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아와, 박해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박해에 대해 배우고 성경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때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더 많은 걱정과 힘겨웠습니다. 2024년 2월, 군부는 강제 징집법을 발표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끌려갈 것을 두려워하며 국경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젊은 기독교 남성인 단*은 군대에 강제 징집되었습니다. 단과 그의 가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지역에서 살며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징집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고 두려웠습니다. 2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저는 그저 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는 젊은이들에게는 시민방위군

(PDF)에 동참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선택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소수 민족 기독교인들이 무장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안전과 제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자훈련을 통해 기독교 청년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개종한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추가적인 박해

불교 승려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극단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불교 공동체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식수와 같은 공동 자원을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와 카리스마파 교회들도 반대를 경험하는데, 시골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과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회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교 배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메이 메이*는 직장과 집을 잃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와 친구들은 공장의 비밀 모임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존* 목사님의 말씀을 들곤 했습니다. 공장주는 메이메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그녀를 구타하고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공장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 메이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존 목사와 같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당국에 의한 제한 가운데서 계속 예배하며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어느곳에 있든지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교제와 기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원조를 제공하며 목사들과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전해온 기도문:

사랑하는 아버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회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모여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할 날을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 비밀리에 당신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깨어진 마음을 치유해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켜주시며, 성령 안에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 안에 기쁨을 회복해주세요.

아버지, 저희가 당신을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오며,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저희를 인도해주시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와 늘 함께해주세요.
아멘.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들을 위한 후원

20,000원으로 실향민 기독교인에게 한 달치 긴급 지원과 원조 지원 (식량, 식료품, 식수, 따뜻한 옷, 담요, 방수포)

70,000원으로 청년 기독교인들을 위한 제자훈련 지원

150,000원으로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안전한 거처 제공과 같은 실제적 지원

180,000원으로 실향민 기독교인이 박해에 대해 성경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지원

후원문의:

02-596-3171 / 010-7548-3171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카카오톡채널 상담

자동이체: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정기후원
- CMS 실향민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동 비용, 장소 비용, 강사 비용)

200,000원으로 교회 지도자를 위한 5일간의 성경 훈련 중 하루 비용 지원

300,000원으로 교회 지도자를 위한 리트릿 비용 지원

500,000원으로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통해 취약한 기독교인이 생계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 (축산, 재봉, 직조, 식료품 가게 운영, 소규모 농업, 모바일 수리점 운영 등)

계좌입금:

한국오픈도어 계좌 입금 -

아시아 1005-901-884970(우리은행)

(입금 시 입금자명에

'실향민' 세 글자를 함께 넣어주세요)





그들의 이야기

미얀마에서 믿음을 지키는 대가

마잉 목사와 그의 아내 메이는 미얀마에서 사역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2021년 이전까지 마잉 목사와 그의 가족은 불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얀마 중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5년 넘게 평화롭게 살았으며, 마을 이장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잉 목사는 주민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아내와 함께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이들 가족을 존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뢰를 쌓을 수록 일부 불교 지도자들은 마잉 목사의 존재와 기독교 신앙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행히도 마잉 목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 이장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잉 목사가 일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한 주민, 우 툰*을 기억합니다. 그의 개종은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우 툰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의 가족은 그를 조롱했고, 심지어 그의 아들이 직접 그를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 툰은 믿음을 지켰고, 주민들은 그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잉 목사는 가족을 마을 변두리로 이주시키고, 그곳에 집을 짓고 정기적인 교제 모임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종교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적대감이 커져갔지만, 마잉 목사와 그의 가족은 마을 주민들과 쌓아온 신뢰 덕분에 여전히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2월 1일,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정부를 전복하고, 과거 50년간 지속되었던 군사 정권을 다시 세웠습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전역에서 공공 항의와 대규모 집회가 발생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는 마잉 목사와 그의 가족을 포함해 미얀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력을 빼앗겼기에 구청 관리자, 마을, 군구, 그리고 도시 지도자들은 자리에서 쫓겨나고 군부 소속의 또는 군부를 지지하는 관리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마잉 목사의 마을에 군부를 지지하는 관리가 부임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이장이 바뀌고, 마잉 목사와 그의 가족은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쿠데타가 시작된 후, 저희 마을의 기독교인들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마잉 목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마잉 목사가 이방인이며, 이방 종교를 섬기고,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파하고자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잉 목사는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사건을 떠올리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젊은 남자들을 모아 술을 먹였고, 저와 제 아들들을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마을의 일부 주민들이 그들의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었고, 저는 아들들을 데리고 황급히 마을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마잉 목사와 그의 아들들은 잠시 안전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가족은 여전히 마을에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 남자들이 저희 집을 습격해 저와 아들들을 찾았습니다. 제 아내와 딸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해치지 않았지만, 아내와 딸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에서 저희를 기다렸지만, 저희가 돌아오지 않자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보인 버마 마을 주민 두명을 살해했습니다."

마잉 목사는 위험성을 고려해 아들과 마을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내 메이와 딸도 새로운 곳으로 따라왔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의 도움으로 제 아내와 딸은 새로운 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아내는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저희가 전부 마을을 떠난 것을 알게 되자 저희 집을 약탈하고 모든 소유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불태웠습니다."

마잉 목사는 그 때를 기억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 처럼 선명해요."

마잉 목사와 그의 가족은 이제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많은 실향민 기독교인들 처럼 수입원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그의 소식을 듣고, 그를 격려하고 식료품을 지원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당시 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오픈도어 동역자들의 후원과 기도를 통해 전달된 도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향민이 되고 그 누구도 저희가 잘 있는지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잉 목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분을 섬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전쟁과 탄압으로 인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실향민이 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걱정됩니다."

메이는 쿠데타와 내전이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우려하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저희는 수년 동안 사역을 하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전쟁과 박해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향민이 되었고, 저희는 그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 제목:

- 마잉 목사와 그의 아내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주세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이들을 치료해주시기를, 그리고 부모와 함께 박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 하나님께서 개입해주시고 미얀마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주세요.
- 마잉 목사와 같이 미얀마에서 신앙을 이유로 박해 받고 실향민이 된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과 마음과 영을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미얀마 양 목사의 굳건한 믿음

오픈도어의 미얀마 파트너인 데이지 툰*이 처음으로 양* 목사를 만났을 때,
그는 생명력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사역자였습니다.
그 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군부 쿠데타가 미얀마를 폭력과 혼란에 빠뜨리기 전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후, 데이지는 다시 만난 양 목사를 알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모습과 태도의 변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기를 잃은 눈빛과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생기고, 몸은 야위어 지치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를 겪고 온 군인 또는 고된 노동을 한 농부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미얀마가 팬데믹으로 흔들리고, 잇달아 쿠데타로 인해 국가가 더욱 불안정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양 목사는 곤경 가운데 홀로 있지 않지만, 그의 경험은 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사역을 계속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쿠데타가 처음 발생했을 때, 양 목사와 그의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쿠데타가 시작된 2021년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거리에서 시위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죠. 아내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 낯선 상황은 곧 위협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찰이 저희를 가로막고, 핸드폰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에서 시위

사진을 본 경찰은 우리를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청년부 목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제가 청년들을 이끌어 시위에 참여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놓아주었지만, 저희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고 도시를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대부분의 버마족 (미얀마 시민)에게 군부 통치는 너무나 익숙한 현실입니다. 가장 최근의 쿠데타가 발생하기 10년 전, 국가는 50년 가까이 지속된 군부독재를 견뎌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무수한 인권 유린, 그리고 군사 정부와 주로 특정 민족 집단 출신으로 구성된 반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군사 통치의 오랜 역사는 많은 버마족이 대부분 군부의 감독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만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과거 군부 정권 아래에서 표적이 되어 학대를 당하고, 강제 개종, 차별, 그리고 박해를 겪었습니다. 버마 성도들은 2021년 군부 쿠데타가 기독교인들이 미얀마의 근대 역사 대부분에 걸쳐 경험한 고통스러운 탄압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 목사와 그의 아내는 당국에 의한 의심으로 인해 그 심문이 결코 마지막이 아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마주친 이후, 초기의 시위는 전국 곳곳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양 목사와 그의 아내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곳까지 확대되어 이들은 다시 이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얀마는 달라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 목사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쿠데타 이전에 기독교인들에게 특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마다 많은 방해에 직면했습니다. 저희는 기독교 활동을 하기 위해 늘 지방 당국과 종교 사무소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그 과정은 길고 느렸고 보통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 이후에 많은 것들이 더 치명적으로 변했습니다. 군사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지역을 자주 공습해 수천명의 사람들을 살해하고 실형민 가족을 발생시켰습니다. 양 목사와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괴롭힘, 폭력, 그리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양 목사는 새로 이주한 도시에서 작은 교회의 목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제한 가운데에도 성도들은 기도 모임을 위해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웃들이 예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지방 당국에 항의했습니다. 결국 저희 교회는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양 목사와 그의 교회는 군부의 위협에 더해 극단주의 단체들로부터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정부를 지지하며 군부 정권의 무장한 심복의 역할을 하는 민병대입니다.

양 목사가 단호하게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을 억류하고 몸값을 요구하는 이 극단주의 단체들을 두려워합니다. 올해, 제가 섬기는 지역에도 극단주의 단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 총을 겨누며 눈을 가리고 강제로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성도들을 말할 수 없었고, 그들은 성도들의 집을 수색하면서 돈과 귀중품을 빼앗았습니다. 극단주의 단체들은 가치가 될 만한 물건을 다 가져갔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성도들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몇번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성도들이 마을에서 도망쳤습니다.”

박해는 확대되어 양 목사와 그의 가족을 공격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저희 집에 와서 오토바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 150,000차트 (대략 \$75, 미얀마의 최저 월급의 두 배)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저희 집을 다시 약탈했습니다. 그 때 저희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 목사는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보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폭력이 그의 가족에게 한 일을 보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 저곳 이주하는 것은 저와 아내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쿠데타 이후에 저희의 삶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희는 총소리와 폭탄 소리 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밤에 폭발 소리를 들을 때 마다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내는 이로 인해 심장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이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저는 남편이자 아빠로서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무력합니다.”

그는 미얀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부담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살아가며 낮에 일상생활을 위해 집을 나서는 것 모두 스트레스입니다. 저희가 오토바이를 탈 때면 성경말씀 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에 작은 일에도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식료품을 사러 집을 나설 때도: 하나님 제가 집으로 안전히 돌아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양 목사는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가끔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심을 압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저희는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온가족이 매일 밤 기도합니다, 저희 인생의 흥해를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그리고 자기 전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양 목사와 그의 가족이 현재의 거처로 이주한 이후, 이들은 계속되는 격변에 고갈되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바로 그 때 오픈도어 파트너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양 목사를 박해 대비 훈련에 참석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이 때부터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픈도어 파트너들을 만나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이 박해 받은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그들과 동역하고 실향민 성도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해 대비 훈련을 참여하고 나서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위한 교제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들쭉날쭉한 전화 연결과 인터넷이 방해로 인해 동역자들과 소통할 수 없어 외롭고 떨어져 있다고 느끼곤 했기 때문에 이 훈련이 저에게 필수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이러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그들도 저처럼 이와 같은 격려의 교제 시간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목회 사역은 극심히 위험합니다. “저는 이 모임을 위해 여정을 떠나고 군부를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안그러면 그들은 저희를 수상하게 여기고 투옥시키거나 저희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직접 이러한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하루는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훈련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저희를 멈춰 세우고 길 옆에 무릎을 꿇도록 했습니다. 군인들은 저희에게 총을 겨눈 채 저희 가방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여행의 목적에 대해 심문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었고 결국 풀려났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성도님들의 기도가 저희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쿠데타는 만연한 빈곤으로 이끌었고, 양 목사의 가족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극심한 재정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힘든 이 시기에 교회 성도들과 동료 목회자들을 힘 닿는 데까지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럴 수 없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하여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양 목사와 다른 버마족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이 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윤은 상당히 낮지만, 이 괴로운 시기 가운데서 저희 가족이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소득을 통해 다른 이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 목사와 그의 가족은 매일의 필요를 공급 받고 있지만, 군부의 극단주의 단체들의 계속되는 폭력의 위협과 괴롭힘은 그들의 삶을 극히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파트너가 4년전 그를 처음 만난 이후로 그의 모습과 표정은 정말 나이가 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기쁨은 여전히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미얀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극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평화, 정의, 그리고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믿습니다. 저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아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 미얀마에서 실향민이 된 성도들 (그리고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음식, 거처, 그리고 생필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사 그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미얀마에 평화가 임하고, 공격과 살인이 멈추도록 기도해 주세요.
- 양 목사가 기독교인들을 훈련하고 지지하기 위해 여러 곳을 이동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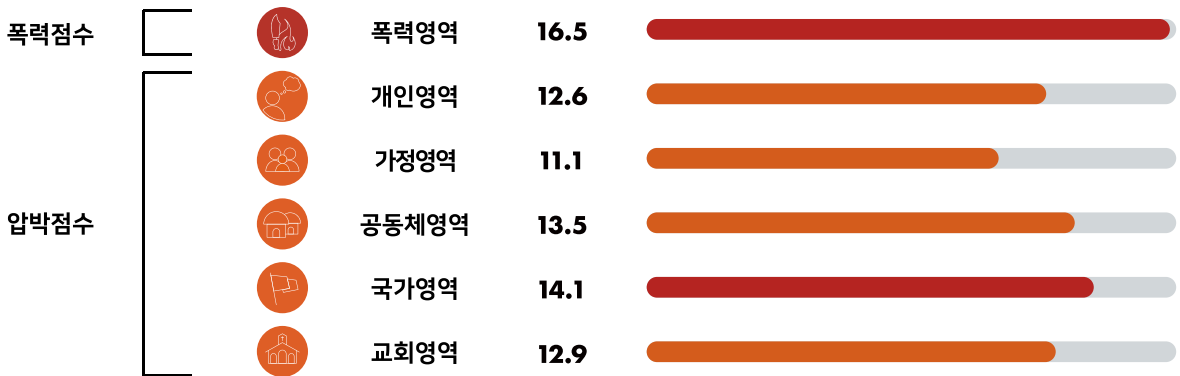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미얀마 (MYANMAR)

기독교 박해지수
13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2025년은 미얀마가 점점 더 격렬해지는 분쟁의 5년차에 접어드는 해다. 2021년 2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미얀마의 많은 지역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수 기독교인이다. 친, 카야 등 기독교가 우세한 주뿐만 아니라 카친, 카렌, 산 등 소수 기독교가 강한 주에서도 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잘 정립된 교회조차도 공격을 받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쫓겨나 난민 캠프에서 살거나 교회로 피신하거나 심지어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밀림으로 피난을 떠났다. 내전이 시작된 이래로 미얀마에서는 약 150만 명의 시민이 국내실향민이 된 것으로 추산된다.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평화적인 저항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0월 북부 산 주에서 세 개의 강력한 소수민족 무장 단체가 벌인 '작전 1027'이라는 이름의 공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전반적으로 군사 정권을 후퇴시키고 버마 심장부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다른 소수민족 무장 단체의 공세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미얀마 영토의 절반 가량을 점령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불교, 무슬림 또는 부족의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개종을 배신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핍박을 받기도 한다. '불교도만'을 유지하려는 지역사회는 기독교인 가족에게 지역사회의 수자원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등 기독교인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미얀마의 시골 지역에 위치하거나 개종 전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전통적 교회 단체도 반대를 경험한다.

미얀마 (MYANMAR)

국가 정보

지도자 : 아웅 흘라잉 총리

인구 : 54,965,000 명

기독교인 수 : 4,760,000 명¹

주요종교 : 불교

정부형태 : 군사 정권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4,760,000	8.7
불교	40,603,000	73.9
민족 종교	5,159,000	9.4
이슬람	2,123,000	3.9

출처²

1948년 미얀마가 독립한 후 몇 년 동안 다양한 민족 집단이 분리 독립을 시도하며 독립 국가를 형성하려 했다. 국가의 통합과 버마 민족의 지배를 유지하려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고, 이후 50년간 군부 통치가 이어졌다. 아웅산 수지 여사가 주도한 일련의 시위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압력이 높아졌고, 2015년 선거에서 수지 여사가 압승을 거두면서 정점에 달했다. 그녀는 2020년 선거 이후 군부에 의해 강제로 퇴진했고, 이후 미얀마는 다시 군부 통치로 돌아갔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불안과 폭력,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소수 민족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소수 민족(친, 카렌, 리수, 카친, 나가, 카야, 라후 등)에 속하며 버마인(바마족)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고 소수 민족에 속한다.

¹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²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쿠데타 이전에도 기독교인들의 삶은 힘들었다. 예를 들어 2015년 8월에 '인종 및 종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었다. 이 법은 종교 개종, 종교 간 결혼, 인구 통제, 일부일처제를 규제하여 불교의 정체성과 다수 민족인 바마라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법은 마바타와 같은 민족주의 불교 단체에 의해 전국적으로 환영을 받았다. 이 법은 주로 라카인주의 소수 무슬림을 겨냥한 것이지만, 개종을 하려면 여러 당국에 신고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마바타는 여러 차례 금지되었지만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급진적인 불교 단체들은 기독교인보다 무슬림을 더 많이 표적으로 삼아 대부분 무슬림인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2022년 3월, 미국 정부는 로힝야족에 대한 잔혹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했으며, 세계사법재판소(ICJ의 새 이름)는 미얀마에 대한 집단학살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고 있다. 마바타와 피우 쏘티는 불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군부의 압박과 심지어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기독교인 살해 사건도 보고되고 있다. 유엔은 미얀마의 아편 생산량이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수익성이 높은 조직 범죄와 무법 지대가 인신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USIP, 2022년 11월 9일). 무법 지대는 주로 기독교 소수 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미얀마의 외

딤 지역과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다. 중국은 중국인이 주요 표적이 되기 때문에 무법 지대에 대한 급습과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신교인은 전체 기독교인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미얀마 침례교회의 교인 수는 약 16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상당수는 카렌족, 카친족, 친족에 속한다. 가톨릭 신자의 수는 이보다 적지만 최대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교파 간 연합이 강하지 않으며, 논란이 되는 사안이나 (박해) 상황에 대해서는 반응이 통일되지 않는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WWL 2025 보고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겪은 어려움은 기독교인이 다수인 지역(예: 친주)과 기독교인이 소수인 지역 모두에서 분쟁이 고착화되었다는 점이다. 타트마도(무장 세력)는 기독교 마을과 교회 건물(때로는 난민 수용소나 난민 수용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기독교인을 살해한다. 친 주에서 잔학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북쪽의 카친 주, 남동쪽의 카인 주, 남동쪽의 카야 주, 서쪽의 사가잉 디비전이 다른 핫스팟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대부분 기독교인)이 IDP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수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왔으며 인도주의적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특히 기독교인이 소수인 이웃 산 주, 특히 북부에서 전투가 격화되었다. 라오스와 태국 접경의 무법 지대는 조직 범죄가 성행하는 곳으로, 기독교인이 다수 거주하는 소수 민족 지역에도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범주는 WWL 점수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들 기독교 공동체는 수십 년 동안 미얀마 군부인 타트마도(Tatmadaw)의 탄압과 폭력에 직면해 왔다. 많은 경우 군부와 야당의 투쟁을 지지하는 카친 독립군(KIA)과 같은 급진 반군 단체 간의 갈등에 휘말려 있다. 이러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분리주의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강한 민족주의가 만연하고 '이방인'으로 여



겨지는 기독교인들이 공격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독교 개종자들

불교나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당국, 가족, 지역사회로부터 극심한 인권 침해에 직면한다. 바마르족은 불교를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개종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마을에서 추방당할 가능성이 높다. 마 바타(Ma Ba Tha), 퓨 소우 티(Pyu Saw Htee) 같은 급진적 불교 단체는 불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힝야족

은 주로 무슬림 민족이지만, 군부의 폭력적인 조치로 인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 했던 기독교 개종자들도 있다. 기독교인 로힝야족은 민족적, 종교적 이유로 박해에 직면해 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많은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 교회는 특히 시골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위반에 직면해 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자료의 전도와 수입은 불법이었다. 최근에는 정부 정책이 다른 소수 종교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불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종교적 민족주의 - 민족 - 종교적 적대감과 혼합된 불교

미얀마 인구의 60%는 버마인(바마르족)이다. 버마인이 된다는 것은 불교를 믿는다는 것과 동일시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방인으로 간주되어 국가와 국민 통합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심지어 마 바타 그룹과 같은 급진적인 불교도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 국가 전문가가 군사 정권이 마 바타 회원을 구청 관리자로 임명했다고 보고했다.

독재적 편집증

미얀마는 군부에 의해 통치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15년이나 2020년 선출된 정부 모두 편집증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21년 2월의 군사 쿠데타에서 알 수 있듯이 미얀마는 군부가 거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의회 의석의 4분의 1이 군인들을 위해 배정되어 있고 군대가 가장 중요한 정부 기관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한 국가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버마 정부의 '통치권'(중국의 '천명'에 비견되는)과 불교 생태계를 조성, 유지, 확장하는 능력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버마인들이 전통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치한 적이 없는 지역에 불교를



확장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현 군부에게 매우 중요하다."

조직적 부패와 범죄

옥, 광석, 목재 등 미얀마에서 가장 귀중한 천연자원은 기독교 인구가 많은 주에서 많이 발견된다. 또한 미얀마는 아시아 최대 아편 생산지 중 하나인 '골든 트라이앵글'의 일부이다. 종종 군부와 반군 단체는 이러한 수익성 높은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놓고 경쟁한다. 기독교인처럼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군 단체와 군대 모두로부터 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다. 산 주와 같은 소수민족 주와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한 다른 주에서 생겨난 무법 지대는 내전이 조직 범죄에 어떻게 이득을 주는 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2021년 2월의 군사 쿠데타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미 상당한 세력을 확장한 군부는 성폭력 가해자로 알려진 젠더 기반 폭력의 가해자다. 많은 난민 여성과 청소년이 노예, 인신매매, 학대에 취약하다. 또한 로힝야족 기독교 여성들은 여성을 납치하여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극단주의 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다. 주로 기독교인인 카친주의 여성들은 남성 후계자를 낳기 위해 중국으로 '신부'로 계속 인신매매되고 있다. 또한 개종자들은 가택 연금, 강제 결혼, 가정에서의 추방, 이혼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사회 공동체/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거부
- 강제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 (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성적

남성

기독교인 남성은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마을이나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강제 노동의 굴레에 갇힐 수 있다. 기독교인 남성은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앙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군대 내에서 신앙을 실천하거나 카친 독립군과 같은 민병대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을 때 특히 어렵다. 나따라 학교는 기독교가 다음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독교 어린이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 이곳에서 소년들은 불교 승려가 되도록 양육된다. 개종자들은 위협과 조롱, 신체적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현재의 내전 상황에서 기독교인 남성, 특히 청년들은 자동적으로 야당의 일원이거나 정권에 반대하는 민병대의 일원으로 간주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징병제는 남성의 안전과 생존에 위협이 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군대/군인 징집/양심에 반하는 복무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13	81
2024	17	79
2023	14	80
2022	12	79
2021	18	74

전체 점수가 2점 상승한 것은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의 증가 (16.1점에서 16.5점으로 상승)와 교회 생활을 제외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폭의 압력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 2025년 미얀마는 군사 정권과 저항 세력 간의 폭력이 계속 확대되면서 인권, 경제 안정,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등 폭력적 분쟁이 더욱 심화되는 4년차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수민족인 기독교인들은 전국적으로 교회 파괴, 폭격, 불태우기 등 최악의 인권 침해에 직면해 있다. 집회 제한, 통행금지, 예배 장소에 대한 표적 공격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분쟁으로 인해 수많은 신자들이 국내 실향민 또는 난민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발전 중 하나는 강제 징병제가 도입되어 공포가 고조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나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기반이 더욱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3년 11월 26일: 주군이 카야주의 로이 카우 대성당을 공습하여 건물에서 보호를 받으려는 국내 실향민들이 다른 곳으로 피난하게 했다.
- 2024년 1월 7일: 사가잉 사단의 카난 마을에 있는 한 교회가 공습의 표적이 되어 17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중 11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 2024년 4월 12일: 카친 주 모닌 마을에서 가톨릭 사제 폴 카위 세인 아웅이 아침 교회 예배를 드리던 중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된 기독교인	교회나 기독교 건물에 대한 공격 또는 폐쇄	구금된 기독교인	정부에 의해 투옥되거나 처벌받은 기독교인
2025	60	80	100*	10*
2024	34	32	18	1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종교 기반 폭력의 일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역학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해야 한다.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둥근 숫자(10*, 100* 또는 1000*)가 제공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기호 숫자 10,000*, 100,000*, 1,000,000*도 마찬가지다.

개인 영역

미얀마의 현행법은 개인이 개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인증 및 종교 보호법"의 일부인 종교 개종법에 따르면 종교를 바꾸고자 하는 시민은 새로 설립된 종교 개종 등록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인터뷰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종교 공부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신청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되어 개종자는 신청을 철회하라는 지역 사회의 심한 압박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개종은 보통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또한 개종자는 가족과 커뮤니티의 압력에 직면하고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가족 영역

미얀마 정부는 학비 없이 운영되는 기숙형 학교로 소수민족에게 매력적인 '국경 지역 민족 청소년 개발 훈련 학교'(또는 나따라)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들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불교를 소개하는 데 사용된다. 이들은 전쟁의 영향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군부는 소수민족 청년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도록 부추겨 소수민족 반군을 약화시키는 관행을 계속해왔으며, 이는 기독교 카친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동체 영역

미얀마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지역 사회의 압박이 심하다. 기독교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빈곤, 괴롭힘, 범죄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정교회에 모이는 기독교인들은 공동체와 정부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이들은 공동체의 결정과 자원에서 배제된다. 건축 자재와 식수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면 기독교인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내전이 심화되고 실향민과 실향민 수용소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독교인에 대한 의료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허용되지 않거나 최소한의 부분만 제공되고 있으며, 국제적 감시(때로는 접근조차 차단됨)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국가 전문가가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정부는 안면 인식, 전화 도청, 인터넷 검열,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과 같은 감시 기술을 사용하여 기독교인, 특히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특히 기독교인이 다수인 분쟁 지역에서 군부나 무장 단체의 감시, 괴롭힘, 위협을 받고 있다."

국가 영역

2008년 헌법 361조는 다음과 같다: “연합은 대다수 시민이 고백하는 신앙으로서 불교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한다.” 또한 362조에서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정령숭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교의 특별한 지위”는 불교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남용되어 왔다. 이전 정부는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통제하고 종교 간 결혼을 금지하며 산아제한을 도입하여 불교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개종하려면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독교인은 일반적으로 불교인이 없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고용되며 승진에서 우회하는 경우가 많다.

내전이 심화되면서 기독교 구호 활동가들과 목회자들이 저항세력 지도자라는 비난을 받고 군대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국가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독교인은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반하는 설교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이 다른 불교계 사업가나 정치인들에 의해 매우 거짓된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다.

교회 영역

반대 의견, 특히 소수 민족과 종교적 소수자의 상황에 대한 비판은 군부에 의해 가혹하게 다뤄진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종종 저항에 가담하거나 심지어 주도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군사 정권에 평화적으로 맞선 후 여러 차례 구금된 앤 로즈 누 타웅 수녀를 비롯해 용기 있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UCA 뉴스, 2022년 1월 28일).

교회가 반대의 중심지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 당국, 특히 군대는 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이러한 감시가 교회 건물과 교회 사역자 및 지도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살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불교 민족주의 운동인 마바타와 연계된 불교 승려들도 기독교 활동을 감시한다. 개종자의 경우, 발각되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압력은 훨씬 더 높다.



©Pexels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미얀마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2.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3.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미얀마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어린이들은 불교 종교 교육을 받고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의식과 축제에 참여하도록 강요받는다 (CRC 제14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공동 자원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다 (ICESCR 2조)
- 적절한 생활 수준과 생활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기독교인 가정과 상점이 공격 당하고 파괴된다 (ICESCR 11 조)
- 기독교 여성 개종자들은 불교 남성과 강제로 결혼하고 새로운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CEDAW 제16조 및 ICESCR 제10조)
- 카친족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이 성매매로 인신매매되고 있다(CRC 제34조 및 CEDAW 제6조)

미얀마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대부분 무슬림인 로힝야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는 헤이그에서 논의 중이지만, 전체 법정 절차는 더디고 그 사이에도 박해는 계속되고 있다. 2024년 8월, 마웅도 인근에서 군과 무장 단체 간의 충돌로 50명이 넘는 로힝야족 민간인이 사망했다. 동시에, 타트마도는 종종 협박과 속임수를 통해 로힝야 남성과 소년(15세 이하)들을 강제로 군대에 징집하고 있다.

로힝야족이 아닌 다른 지역의 무슬림들도 정부나 군대에서 박해와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무슬림에게 부동산을 팔기를 거부하고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힌두교도 역시 불교 우월주의로 인한 제한과 압박을 느끼지만 다른 소수 종교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오픈도어의 미얀마 사역

오픈도어선교회는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미얀마에서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제자 훈련 프로그램
- 어린이 및 청소년 훈련
- 목회 및 리더십 훈련
- 박해 대비
- 생계 지원
- 현존 사역
- 가족 및 결혼 강화

이끄심

김서윤 전도사

은명이(가명) 이모 덕에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생활은 정리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여전히 대한민국이었다. 어머니는 이모에게 길림시에 있다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찾고 있다고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런데 길림시에는 한국 영사관은 없고 베이징에 가야한다고 했다. 기껏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청천벽력라도 같은 소식이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우리가 길림에 도착했던 99년초에는 동북지역에 한국영사관이 없었고, 그 후로 몇 개월 뒤에야 심양(선양)에 영사관이 개설되었다. 정확한 정보가 없었던 우리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길림시에 있는 줄 알고 그곳으로 왔던 것이다.

우리는 한국행을 위해 베이징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곳에 가면 당연히 한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계획과 목적을 다 들으신 은명이 이모는 아무래도 어머니가 먼저 상황을 살펴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그동안의 여정이 너무나 고달프기도 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베이징에 가는 것은 분명 위험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베이징 방문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도움을 주셨다. 그렇게 베이징에 가신 어머니께서는 그곳 상황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다고 느끼셨다. 베이징 대한민국 대사관 근처는 공안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 기웃거리거나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단번에 그들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었다. 그렇게 며칠간 그 주변을 배회하던 어머니께서는 베이징 보다는 제3국, 베트남을 통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한 국으로 갈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셨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음 목적지를 정하신 어머니는 길림으로 돌아온 후 베트남으로 갈 준비를 마쳤다. 가족 모두가 함께한 이번 여정은, 감사하게도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은명이 이모의 도움이 매우 컸다. 덕분에 우리는 순조롭게 중국 남부의 남녕(난닝)시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남녕시의 첫 인상은 매우 강렬했다. 찜질방 같은 무더위가 우리를 반겨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무더위 속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베트남에 가보니 베트남도 남녕시와 별 다르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베트남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베이룬강(Beilun River, 北侖河)을 건너야 했다. 또 다시 강을 건너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여정에는 도강(徒江)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 따라다니는 듯했다. 관광객처럼 위장하고 베이룬강 지역을 관람하는 쪽배를 하나 섭외했다. 그러다 한적하고 외진 곳에 다다랐을 때 배를 운전하는 아저씨에게 우리끼리 구경하고 싶다면 돈을 주고 빠져나왔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무도 안보는 틈을 타서 베트남 땅에 발을 내디뎠고, 잘 닦여있는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더니 순식간에 총기를 든 베트남 국경 수비대들이 우리를 쫓아왔다. 알고 보니 그들은 우리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강을 넘어오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꼼짝없이 베트남 국경 수비대에서 취조를 받아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호통을 치고 욕박질러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척 해야 했고, 절대 중국인이 아니라고 우겼다. 우리는 끝까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우기며 한국 영사관에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여권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했다고 둘러대었다. 베트남에서의 취조의 과정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상당히 진전이 더뎠다. 중국말이나 한국말, 영어 모두 제대

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었던 그들은 우리의 사진을 찍고, 우리의 한국 집 주소를 적어 내라고 했다. 당연히 한국에 집이 없었던 우리는 은명이 이모가 주셨던 한국화장품 샘플에 적혀있는 화장품 제조사 주소를 적어냈다.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위험한 상황도 여러번 있었지만, 오직 대한민국에 가기 위한 일념으로 모든 고통과 수모 그리고 어려움을 견뎌냈다. 그렇게 산속에 있는 국경 수비대에서 한달 넘게 생활을 하고 도시와 가까이 맞닿은 본부에서 약 2개월 동안 생활하였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베트남어도 몇마디 익히게 되었고, 안면을 틈 베트남 군인들도 전보라는 부드러운 태도로 우리를 대하게 되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나와 엄마는 그들의 안내에 따라 국경 수비대 대령 집무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수화기를 전해 받았다. 나는 단번에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온 반가운 소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얼마나 설레고 기뻐던지 쿵광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힘들었다. 그렇게 조심스레 어머니는 수화기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한국말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먼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사정상 탈북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 오시던 길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내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초 지종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이미 전화기에서는 “뚜,뚜,뚜” 하는 기계음만 흘러나올 따름이었다. 갑자기 우리를 둘러싼 공기의 흐름이 바뀐것 같았다. 1분1초가 영겁의 시간 같았고 하루가 1년 같이 느껴졌다. 한국에 가겠다는 희망을 품고 먼길을 돌아온 우리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우리를 거부했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상가상으로 24시간 안에 북측에서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곳에서 최대한 빨리 탈출해야만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가진 모든 짐들을 버리고서라도, 그날 밤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결단했다. 모두가 잠든 밤 12시쯤이 기회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일찍부터 방에 불들을 소등하고 보초 서고 있는 경비병이 자리를 비우기만 바랬다.

(계속)



Heart To Heart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 50일 기도] 기도책자 신청하세요

개인과 가정, 단체, 그리고 교회가
전세계 박해받는 지역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2025년 월드와치리스트 50일 기도책자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요청하기- 각종 자료 요청), 카카오톡 채널, 문자,
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L 인천지역 순회 발표에 초대합니다

사진출처: 국민일보 신석현 포토그래퍼

세계 기독교 박해현황을 잘 분석한 월드와치리스트 (World Watch List, WWL)는 올해로 32년째 발표되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발표된 통계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보고서는 전세계 3억8천만명의 기독교인이 높은 수준의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세계 기독교인 7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율이다. 이것은 또한 전세계적으로 기독교 선교환경이 갈수록 적대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로잔대회에서는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상위50개국을 중심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어느 교회보다 선교에 열심이 있었다. 조금 주춤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그 열심이 식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교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나, 선교사 후보생 특히 선교행정을 집행하는 관계자들이 접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선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선교정보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급한 현안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해마다 발표되는 WWL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오픈도어는 이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하여 세계감시연구소 (World Watch Research)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전세계 70여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가별 보

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국가별 보고서는 지역교회가 선교적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오픈도어가 매년 귀한 자료를 발표한다 해도 한국교회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고, 중복된 투자로 소중한 시간과 자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교회 목사님, 선교담당 실무자, 선교관심자들을 만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서울, 인천, 익산,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춘천 등을 순회하며 전세계 기독교 박해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선교전략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자리에 오픈도어 후원자, 기도용사, 선교 후보생,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합니다.

WWL 인천지역 순회 발표

일시: 2025년 3월 28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예그린교회(고용진 담임목사)

주소: 인천 서구 연희동 683-4 3층

Tel. 032) 561-0623

내용: 1) 전세계 박해동향

2) 어린이 박해지도

3) 오픈도어 기도용사



2025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는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이해와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기회인
북한선교학교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주차	날짜	강의 주제	강사	형식	
북한 선교를 위한 북한 이해	1	4월 7일	북한의 정치와 주체사상	정종기(고신총회 북한선교원)	온라인	
	2	4월 14일	한국교회와 북한선교	하충엽(숭실대학교)		
	3	4월 21일	북한주민의 경제생활과 장마당	최설(북한대학원대학교)		
	4	4월 28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인권문제	강디모데(엔케이피플)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			
	5	5월 12일	북한의 종교와 교회	유관지(북녘교회연구원)	온라인	
북한 선교 현장	6	5월 19일	북한의 종교 박해 실상	김바울(북한 지하교회출신 사역자)	온라인-대면 병행	
	7	5월 26일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북방선교방송)	온라인	
	8	6월 2일	북한선교에 있어서 국제협력문제	정인수(NKCCC)		
	9	6월 9일	DMZ 기도회			
	10	6월 16일	비즈니스를 통한 북한선교	이다니엘 사무총장(IBA)	온라인	
	11	6월 23일	국내정착 탈북민 선교와 통일목회	정형신 목사(뉴코리아교회)		
	12	6월 30일	제삼국 북한선교 현장 이야기	현장사역자 1	온라인-대면 병행	
	13	7월 7일	제삼국 북한선교 여성사역 이야기	현장사역자 2		
	14	7월 14일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신자, 수료식	현장사역자 3		

일정 및 시간 4월 7일 - 7월 14일, 매주 월요일 저녁 7:30-9:30

진행 형식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일부 강의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됩니다.

회비 - 10만원 (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회비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접수 오픈도어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이벤트 및 공지사항”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접수기간: 2025. 2. 3 - 3. 31)

문의 한아론 선교사 (010-5107-8448)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 5일 ☐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